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 ②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 ③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 ④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 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기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 이익, 『서독승면론』 -

- ①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 ②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 ③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 ④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 ⑤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 ①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③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⑤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흄이 지적했듯이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턴의 과정 이론이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인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가령 바나나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

[A] 가 스크린상의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 하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와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나)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재이론(災異論)이다. 한대(漢代)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에

공동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역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재이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응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그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

4.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항목	학습 내용	
	(가)	(나)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ㄱ	ㄴ
⋮	⋮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ㄷ	ㄹ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ㄴ	

- ㄱ: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 제시하였음.
- ㄴ: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을 제시하였음.
- ㄷ: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하였음.
- ㄹ: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였음.
- ㄴ: ‘인과’와 관련하여 동서양의 특정 이론들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음.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 ②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 ③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 ④ 한대의 재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 ⑤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일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6.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 ②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 ③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 ④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 ⑤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재이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다.
- ② ㉠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재이의 인과 관계를 역전시켜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데 활용되었다.
- ③ ㉡은 개별적인 재이 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 재이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 ④ ㉡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재이 현상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이어져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 ⑤ ㉡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8.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한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 ㉡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 ㉢ 덕이 잘 닦인 치세에서는 재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번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으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 하류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실정을 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청렴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① 흠의 문제 제기와 ㉠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 있겠군.
- ②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국한하는 ㉡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재이론이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겠군.
- ③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에 대해 동중서와 주희는 모두 재이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을 취하겠군.
- ④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는 새먼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되기 어렵겠군.
- ⑤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새먼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에 동의하겠군.

9.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모두가 만족하는 대책을 찾으려 머리를 맞대었다.
- ②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찾아서 확인해라.
- ③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 ④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건강을 찾는 중이다.
- ⑤ 선생은 독립을 다시 찾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겼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0.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 ③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 ④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 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 ④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 ⑤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 ②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 ④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 ⑤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1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향유(享有)하기로
- ② ㉡: 단절(斷絶)하는
- ③ ㉢: 둔감(鈍感)해져
- ④ ㉤: 지대(至大)한
- ⑤ ㉥: 수립(樹立)하였다는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A]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16.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17.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보기 2>

만약 ㉠이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이 (    ㉢    ).

↓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이 (    ㉣    ).

↓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이 (    ㉤    ).

- | ㉠         | ㉡       | ㉢       |
|-----------|---------|---------|
| ① ㉡보다 많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 ② ㉡보다 많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③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작겠군 |
| ④ ㉡와 같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⑤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네깐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허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①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관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 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 더구나 이리루 들어 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피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껀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 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껀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었던 과거의 ㉞ 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혔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1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19.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 ②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 ③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 ④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⑤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2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 ② ㉠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 ③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④ ‘저’가 ㉠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 ⑤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에서 ㉠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하겠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菌過雨柔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다니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흘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최 행수 쭉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담쫄 게쫄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수출전원: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  
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

어졌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떼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  
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팔려 들어간다.

‘웁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잡아당길 때 무거울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여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A] 어떤 때는 방계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B]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똬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쫄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열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제  
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머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  
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이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육’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넓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 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혼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 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 기생을 면함은 다행하나,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한하고 이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에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현신하니 감사가 일견 대희하여 칭찬하며 왈,

“가위 여옥기인(如玉其人)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승상접하(承上接下)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민원(民怨)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필성이 국궁수명(鞠躬受命)\*하고 차후로 공사 문첩(文牒)\*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 리라 어찌 알리오.

차지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하루는 ㉢공사 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전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예를 드나 드나.’

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이방이 갈리었습니까?”

“응,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네 보아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꺼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 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이미 반년이라.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이때는 추구월(秋九月) 보름 때라. 월색은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었고, 공중에 외기러기 웅웅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간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 잊어 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A] 가슴에 가득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님은 어찌 못 보는고.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뜬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낙천(萬古文章白樂天)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흙썬 갈고 청황모 무심필을 덩벽 풀어 백룡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장우단탄(長吁短歎)에 맥맥히 앉았다가 고개를 돌리어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중략)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더니,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야몽(晝思夜夢) 꿈이 되어 장주(莊周)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 좇아 중천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피니,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적막 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의 답시(答詩)를 내놓고 보며 울고 울고 보며 전전반측 누웠거늘,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다.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물론(上下勿論)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이때 이 감사는 연광도 팔십여 세뿐 아니라, 일도방백(一道方伯)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은(國恩)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더니, 홀연히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가 나이 십팔 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하나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 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우어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거늘, 마음에 궤이하여 가만히 들어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본즉 ‘추풍감별곡’이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 국궁수명: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며 분부를 받음.

\* 공사 문첩: 관청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

28. 밑줄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의 걱정을 산다.
- ②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다.
- ③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 ④ 송이는 필성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다.
- ⑤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챈 감사는, ㉡를 읽으며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된다.
- ② ㉠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다.
- ③ ㉠을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에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 ④ ㉠을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⑤ ㉠을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를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30. [A]의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 ②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 ③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상대이다.
- ④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송이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게 한다.
- ⑤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 하거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 ① ㉠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 왔던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 ② ㉡은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게 되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한다.
- ③ ㉢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편,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낸다.
- ④ ㉣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면서,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 ⑤ ㉤은 감사의 사람됨과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 짓게 하는 한편,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숯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은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34. &lt;보기&gt;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lt;보 기&gt;—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꿰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은 용언이 활용할 때의 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5항은 ‘웃다, 웃고, 웃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제18항은 ‘긋다, 그어, 그으니’처럼 ㉠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글 맞춤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국어사전의 [활용]의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아래는 국어사전의 일부를 간추려 제시한 것이다.

**웃다**  
발음 [움:따]  
[활용] 웃어[우:서], 웃으니[우:스니], 웃는[운:는]

**긋다**  
발음 [근:따]  
[활용] 그어[그어], 그으니[그으니], 긋는[근:는]

동사 ‘웃다’와 ‘긋다’의 [활용]에서 각각 ‘웃다’와 ‘긋다’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 즉 ‘활용 정보’를 통하여 ㉡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칙 활용 용언 중 동사 ‘벗다’는 ‘벗어, 벗으니, 벗는’처럼 활용하므로 ‘웃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고, 불규칙 활용 용언 중 ‘짓다’는 ‘지어, 지으니, 짓는’처럼 활용하므로 ‘긋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한편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다’의 활용 정보는 ‘자[자], 자니[자니]’처럼 제시되는데 이때의 활용형 ‘자’는 ‘자다’의 어간 ‘자-’가 어미 ‘-아’와 결합할 때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 ‘자’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좋다’는 ‘좋아[조:아], 좋으니[조:으니]’가 활용 정보에 제시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즉 활용 정보에 나타나는 활용형 ‘자’와 ‘좋아’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5.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르다 - 잠그다
- ② 흐르다 - 푸르다
- ③ 뒤집다 - 끼입다
- ④ 붙잡다 - 정답다
- ⑤ 캐묻다 - 엇듣다

36.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어사전의 표제어와 활용 정보**

㉠ 서다	[활용]	서, 서니 ...
㉡ 끄다	[활용]	꺼, 끄니 ...
㉢ 풀다	[활용]	풀어, 푸니 ...
㉣ 쌓다	[활용]	쌓아, 쌓으니, 쌓는 ...
㉤ 믿다	[활용]	믿어, 믿으니, 믿는 ...

- ①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아래 그림에 따라 [자료]의 ㉠~㉤를 분류할 때, ㉢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자료]

㉠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

㉡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

㉢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3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후배 부원 둘과 선배 부원의 대화 장면)

선 배 : ㉠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후배 1 : 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선 배 : 수고했어. ㉡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해 뭐라고 해?

후배 2 :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선 배 : ㉢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을 텐데.

후배 1 : 그런데 학교에서는 ㉣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선 배 : ㉥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고생했어.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볼게.

후배 2 : 네. 그럼 ㉦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 ① ㉠과 ㉡은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
- ② ㉢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군.
- ③ ㉣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군.
- ④ ㉤은 ㉡의 ‘학교’와 ㉢의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군.
- ⑤ ㉦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

39.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신체 관련 어휘는 ㉠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때 ㉢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의미 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코<sup>1</sup>

-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
-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코<sup>2</sup>

-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


- ① ㉠ : 묶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로 닦았다.
- ② ㉠ : 어부가 쳐 놓은 어망의 코가 끊어졌다.
- ③ ㉡ :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 ④ ㉡ :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
- ⑤ ㉢ :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 나가셨다.

[40~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신문사의 웹 페이지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군민신문
🔍

###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폐교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지난 1일 △△군은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군 특색 숙박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희 시설을 활용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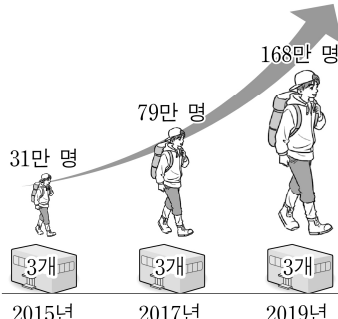
사진 : ○○초등학교 시설 전경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시설은 ☆☆마을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는 객실·식당·카페·지역 역사관 등으로 꾸미고, 운동장에는 캠핑장·물놀이장을 조성한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인접한 ☆☆마을은 2015년부터 캐릭터 동산, 어린이 열차 등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로써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A]




2015년 31만 명  
2017년 79만 명  
2019년 168만 명

3개 3개 3개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수 추이

※자료: △△군 문화관광체육과(2019)



20만 원

7만 3천 원

여행 유형

여행 1회당 지출액(2018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더 많다”며 “인근 수목원과 벚꽃 축제, 빙어 축제 등 주변 관광지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06:53:01 최초 작성 / 2021.06.03. 08:21:10 수정  
△△군민신문 이◇◇ 기자

👍 좋아요(213)
👎 싫어요(3)
🔗 SNS에 공유
📄 스크랩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증가... 인근 주민들, “유희 시설로 방치되어 골칫거리” 📄
-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④] ☆☆마을... 다섯 가지 매력이 넘치는 어린이 세상

**댓글**

**방랑자 :** 가족 여행으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나들이 :** 맞아요.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도 즐기고요.

↳ **방랑자 :**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40. 위 화면을 통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으니,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겠군.
- ②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 ③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기사가 문자, 사진 등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군.

4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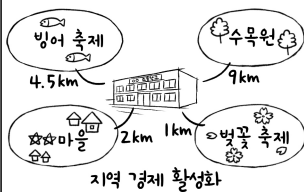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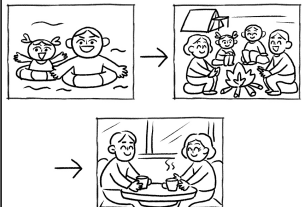
<보 기>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한다.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에는 기사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시각 자료의 이미지 활용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봐야 한다.

- 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이겠군.
- ②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 △△군 관광객 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겠군.
- ③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겠군.
- ④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겠군.
- ⑤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겠군.

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행 과제:** 우리 지역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 바탕 자료:**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인터넷 기사와 댓글
- 영상 내용:** 새로 조성될 숙박 시설 소개
- 첫째 장면(#1): 기사의 제목을 활용한 영상 제목으로 시작
  - 둘째 장면(#2):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대비시켜 표현
  - 셋째 장면(#3): 건물 내부와 외부에 조성될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
  - 넷째 장면(#4):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이를 통한 기대 효과를 한 화면에 제시
  - 다섯째 장면(#5): 기사의 댓글을 참고해서 시설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연속적으로 제시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장면 구성
①	○○초등학교, 폐교의 재탄생 	#1 ○○초등학교의 모습 위에 영상의 제목이 나타나도록 도입 장면을 구성.
②	무겁고 어두운 음악 → 밝고 경쾌한 음악  → 	#2 무겁고 어두운 음악을 배경으로 텅 빈 폐교의 모습을 제시한 후,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으로 전환.
③	건물 내부 공간 • 객실 • 식당 • 카페 • 지역 역사관 건물 외부 공간 • 캠핑장 • 물놀이장	#3 숙박 시설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
④	 지역 경제 활성화	#4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 자원의 위치를 표시하고, 관광 자원과의 연계로 기대되는 효과를 자막으로 구성.
⑤		#5 가족 단위 관광객이 물놀이장, 캠핑장, 카페 등을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을 제시. 앞의 그림이 사라지면서 다음 그림이 나타나도록 구성.

[43~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잡지에 실린 인쇄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면 1]

진행자: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면 2]

박 기자: ㉡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 인기가 높은 휴대용 선풍기.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종류만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장면 3]

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을 살까 하다가, 이왕이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맘에 드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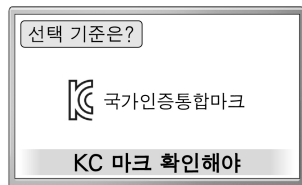


[장면 4]

**박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설문한 결과, 풍력, 배터리 용량과 같은 제품 성능이 1순위였습니다. 이어 디자인, 가격 등 다양한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그런데 휴대용 선풍기는 안전 사고의 위험도 있는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면 5]

**박 기자:** ㉡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KC 마크는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에만 부착됩니다. 간혹 광고로는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실물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호망의 간격이 촘촘하고 날이 부드러운 재질로 된 제품을 선택해야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면 6]

**박 기자:** 휴대용 선풍기 사고가 빈번한 여름철, ㉢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구성의 주체	• (가)는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정보의 성격	• (가)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나)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정보의 양과 질	• (가)는 제품 구매 기준이 다양함을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나)에 비해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가)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44.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
- ② ㉡: 명사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 ③ ㉢: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뉴스의 중심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④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뉴스 내용에 따른 제품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45. (가)를 본 학생이 (나)를 활용하여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이미지, 문구 등을 활용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잡지에 실린 두 개의 인쇄 광고 비교하기

**자료**

**마음속 걱정도 날리는, 내 손 안의 태풍**

**◇◇ 휴대용 선풍기**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

부상의 위험을 줄인  
부드러운 날

안전을 보증하는  
KC 인증

- ① (나)는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문구를 배치하여 제품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② ‘자료’는 기존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품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료’는 (나)와 달리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이미지와 문구로 표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자료’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